

참왕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참된 미션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창세기 22:18, 마태복음 28:18-20

정윤돈 목사님

* **창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 **마28:18-20**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땅끝,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령충만을 받고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문제를 통해 나에게 주신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창세기 22장 18절을 해석하며 “씨”가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은 히브리어 “אֶבְרָהָם”(제라)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즉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주셨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마태복음은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마태복음의 2차, 3차 독자이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1차적인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참 복음과 선교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을 통해 낳게 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 육신적으로는 동정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조상도 다윗이고 아브라함이었다.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스룹바벨에서 만나고 다윗에서 만난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 분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보여준다. 특히 1장의 족보 안에 등장하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틀을 깨는 인물들이다. 다말은 속여서 아이를 가졌고, 라합은 창녀였고, 룻은 이방인이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한다. 이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족보이며 유대인의 뿌리가 의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 없으며 오히려 거룩하기 위해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세리를 매국노와 같은 배신자와 죄인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마태복음은 복음을 이야기하며 율법주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을 질타한다. 복음적이지 않은 체질을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복음이 빛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 흠도 티도 없이 철저히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좌파와 우파도 살려야 한다. 사탄은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만든다.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면 복음을 가지고 남을 정죄한다. 바르고 옳게 살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그건 자신을 향해야 한다. 나는 일반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고 은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없다. 우리의 체질은 자꾸 다른 사람은 욕하고 정죄하는 체질이다. 지적하고 남을 죽이는 체질이다.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체질로 간다. 여러분의 체질이 복음체질이 되시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따끔하게 화를 내신다. 진리를 위해서 화를 낸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나. 내 이익, 가정의 이익, 내 기분, 내 자리 때문이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셨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꾸지람하는 것은 돌아와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다. 더 잘 되고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낮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태를 변화시켜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의 벽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분열하고 똑같이 싸워서는 안 된다. 직장에서도 양보하고 손해 보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싸움 못 한다. 내 안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못 하는 게 당연하다.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다. 내 안의 주님이 나를 강권하며 붙드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와 목적은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구원관을 무너뜨리고 참 복음이신 그리스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미션과 뜻을 전하는 데 있다.

1.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해서 안 된다. 정치를 하더라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해야 한다. 그게 복음적인 정치다. 오늘날 기독교인인 정치인들도 똑같이 정치한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분열한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구나'가 보여야 한다. 바로 왕은 요셉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리오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 굴에서 살리셨냐고 물었다. 그 현장에서 바보같이 일하고 사람을 살리고 손해를 보고 용서해 주면서 응답받으면 직장에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다고 느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아부하지 않고 헤롯에게 아부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다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목표다. 땅끝까지 살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 지금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1조 원씩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 땅끝까지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이권과 계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라.

(2)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했다.

(3)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각자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제자들의 어머니가 오셔서 한 아들은 오른편, 한 아들은 왼편에 앉혀 달라고 한다. 제들과 어머니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윗처럼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램넛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한다. 여러분은 교회를 짓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시기를 바란다.

(4) 당시 유대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참되고 영원한 복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그게 팔복이다.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달랐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다. 이럴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오해를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어도 스트레스 받거나 속지 마셔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 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5)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 이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서는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다. 열병을 단번에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린 자도 고치시고 바다의 파도도 잔잔하게 만드셨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오병이어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물 위로도 걸으셨다. 죽으신 후에는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 모든 기적들을 보여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동일본질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셨다.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알려주셨다. 복음 안에 있으면 어느 날 거듭난다. 지금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자. 가족들이 보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를 충분히 받고, 여유로워지면 남들을 살리고 힘도 주고 세워 줘라. 이게 미션이다.

2. 마태복음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절대미션을 주셨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온다. 사탄은 합리적인 이유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한다.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님이 주인되는 게 학개가 말한 참된 성전 회복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2) 성도들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 계속 도전해야 한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작은 행위라도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도전을 해라.

(3)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평생 10대, 20대일 것 같지만 아니다. 어느 날 80대, 90대, 죽는 날이 온다. 여러분은 그 날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승리해라. 오늘 승리하면 99세, 100세여도 승리하는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돈벌레가 되고 인간성을 버린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신앙의 악세사리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과장법이지만 여러분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선을 행해야 한다.

(5)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지상명령을 주셨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절대미션이다. 사명이다. 여유로워서 구제하고 현금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힘들더라도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모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과 절대미션을 붙잡고 도전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복음집중, 말씀집중, 땅끝집중을 통해 237나라 5천 종족의 현장에 주님이 주신 절대미션을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깨우쳐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